

태국 까우끌라이당 해산 이후 시위 빈도 감소 요인 분석: 정당 요인을 중심으로*

이정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2022년을 지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4년 까우끌라이당의 해산은 2020년 아나콧마이당의 해산과 마찬가지로 시위 빈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왜 까우끌라이당의 해산은 아나콧마이당의 사례와 같이 높은 빈도의 시위를 이끌지 못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위대가 인식하는 아나콧마이당과 까우끌라이당, 최근 재건된 뿌라차촌당의 차이점과 그들이 해산 이후의 시위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살펴보았다. 시위대의 심층 면담의 결과, 법을 이용한 탄압 효과도 있고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지친 시민들이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도 있지만, 까우끌라이당이 아나콧마이당처럼 시위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가 줄어들었다고 활동가들은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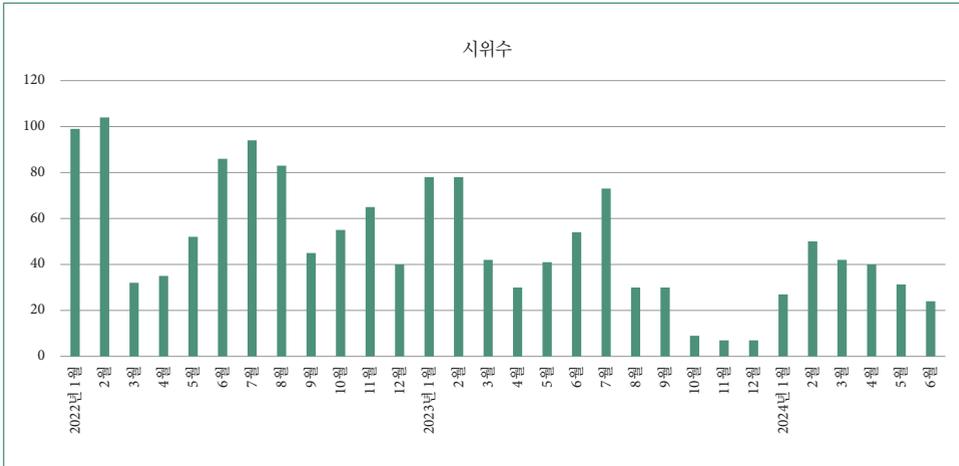
주제어 까우끌라이당, 반정부 시위, 선거 권위주의, 정당, 태국

I. 서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태국 지부와 비정부단체 iLaw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태국 시위 데이터(Mob Data Thailand)”에 따르면 2022년부터 월별 거리 시위 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는 2024년 6월 보고에서 멈추어 있으며 7월 이후 시위의 기록은 뉴스를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2024년 초기에 시위가 늘어난 것은 그해 5월에 옥중에서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한 활동가 네띠폰 “붕” 싸네쌍콸(Ewe, 2024)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10월 14일에 관련

*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태국의 복수의 익명 활동가 여러분,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쥘라롱컨대 반딧 잔로짜나깃 교수님, 부산외대 이미지 교수님, 캐나다 맥길대학의 에릭 쿠흐타 교수님, 아카넷 허랏파나쿤 박사님,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jeongwoo_lee@korea.ac.kr



출처: Thailand Mob Data Blog(2022년 1월~2024년 6월 데이터)

그림 1 2022년 1월~2024년 6월 월별 시위 빈도

한 시위(Crisis24, 2024), 12월 11일~12일 이틀에 걸친 인권의 날을 맞은 집회를 제외하고는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1976년 10월 6일에 탐마삿 학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였으나 이 외의 집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10월부터 행한 시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시위 발생의 빈도가 지속해서 내림세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봉 네퍼폰의 사망과 역시 그해 8월에 발생한 까우끌라이당의 해산은 시위 빈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일어난 아나롯마 이당의 해산은 수많은 젊은이를 시위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에 시위의 빈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2020년과 2024년의 차이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2024년 까우끌라이당의 해산이 높은 시위 빈도를 이끌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필자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10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으면서 일부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왕실모독죄의 조사를 받거나 수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활동가 10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행하지 않고 활동가들을 만난 이유는, 정치인들의

수사보다는 실제로 활동가들이 2020년과 2024년 8월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발화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후에 2025년 6월까지 내용에 관해 확인을 위하여 보완하는 인터뷰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면담의 결과, 활동가들은 2024년 8월 까우플라이당의 해산 이후 시위의 빈도가 줄어든 것은 정당의 요인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가들은 2020년 아나콧마이당의 해산 이후, 시위를 주도한 것은 당대표를 역임했던 타나틴과 여러 정치인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까우플라이당이 해산된 이후, 재건된 뿌라차촌당의 정치인들은 시위와 수감된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성토했다. 물론, 2020년에 비해 2024년에 코로나19의 상황이 완화되어 모두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고 싶거나 오래 지속된 왕실모독죄의 탄압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국 경제의 상황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고 왕실모독죄에 의한 탄압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뿌라차촌당의 침묵이 시위의 빈도를 줄이고 있는 효과를 보인다고 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새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제3장은 아나콧마이당과 까우플라이당의 해산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당시의 언론 분석에 대한 담론 분석을 수행한다. 담론 분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활동가들의 미시적 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방법론과 심층 면접에 사용한 질문지에 관해 설명한다. 제5장은 심층 면접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들이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분석한다. 제6장은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해산 이후 시위의 빈도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면접 대상자들이 어떻게 회고하는지 보고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장과 같이 해산된 정당 혹은 재건된 정당이 직접 나서지 않아 시위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보인다. 제7장은 뿌라차촌당과 시위대의 심리적인 거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필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뿌라차촌당이 거리 시위대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며 결론을 짓는다.

II. 기존 연구 검토

본 논문의 기존 연구 검토는 첫째, 권위주의 국가의 시위 빈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한다. 둘째, 태국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본 연구의 상보적인 관점과 연구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태국의 정치 체제는 항상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에 있었다. 2014년 쿠데타 이후에는 민주주의보다는 군부가 지배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Kongkirati, 2019; Sripokangkul et al., 2023). 2023년 총선 이후, 선거는 문제없이 치러졌으나 야당인 까우플라이당이 제1당이 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집권할 수 없었다는 결합이 있었다. 또한, 2014년 이후, 군부는 왕실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와 「컴퓨터범죄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며(Haberkorn, 2018) 반대파를 탄압하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였다. 현재에도 활동가들은 왕실모독죄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거나 구속·수감되거나 망명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정의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1.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시위 빈도 결정 요인

권위주의 국가를 나누는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폐쇄적 권위주의(closed autocracy)와 선거 권위주의(electoral autocracy)로 나눌 수 있다(Coppedge et al., 2024: 292). 첫째, 모든 권위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적 수행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통계적 경향을 통해 보았을 때, 시위 빈도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은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선거 권위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는 선거가 있으면 반대파가 현직자(incumbent)인 독재자에 반대하여 집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Shirah, 2016). 위 연구는 태국의 사례에 적용하기 힘든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선 태국이 선거를 시행할 때보다는 선거가 연기되고 군정이 있던 2022년까지 시위가 좀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에서 2020년과 2024년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권위주의 연구의 일반화보다는 태국 연구의 특수성에서 본 논문은 접근하고자 한다.

둘째, 멕시코 사례를 통해서 트레호(Trejo, 2014)는 야당이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한다.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은 시위를 지원한다. 동시에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며 선거에서 선전한다는 것이다. 선거 때도 시위의 빈도가 높지만, 야당은 선거 이후에도 시위를 독려한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발생할 탄압 혹은 선거에 관한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후에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조금씩 변하게 된다면 급진적인 시위를 덜 독려하게 된다. 그러면서 시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사례에서 독재자의 야당 포섭이 시위 빈도를 감소하게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야당에 대한 포섭이 일어날 경우, 시위자들은 야당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시위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Reuter and Robertson, 2015).

위 연구의 경우에는, 태국 사례에서는 군부의 까우플라이당에 대한 포섭이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트레호의 연구는 태국의 사례를 일부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부 정당도 분열되어 당시 총리이던 빠라웃은 루앙타이쌍창당으로 입당하였으며(이미지, 2024: 73)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2024년에 까우플라이당이 해산 이후 시위를 덜 독려할 이유가 있다면 시민들의 희생을 막고 법에 따른 탄압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이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사례에서 발견된 시위의 감소 요인이 태국의 사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멕시코 사례와는 다르게 태국에서 까우플라이당이 시위를 덜 독려할 이유에 대해서 검토한다.

셋째,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위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반대파에 대한 탄압(anti-opposition crackdown)을 들 수 있다(De Vogel, 2022). 여기서 말하는 탄압은 독재자에 의해서 반대파의 역량이 파괴(eradication)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폭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사법적인 괴롭힘을 동반하며 시민사회에 속한 개인에 대한 선별적인 탄압을 포함한다. 태국에서도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왕실모독죄를 바탕으로 2020년에서 2022년 당시 시위를 이끌던 대부분은 수감되어 있거나 망명을 선택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수감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활동

가들이 다수이다. 비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2020년이나 2024년이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었다. 계속된 탄압이 누적되어 시위를 억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처벌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다.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활동가들에게 지워지는 조건은 권위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넷째,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에 대한 선전(propaganda)이 시위의 비율을 감소하게 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독재자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홍보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는 그러한 선전에 대해 분별할 힘이 있지만, 다른 이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만큼 선전을 통해 자신감 있는 독재자를 보면서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한 탄압이 예측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Carter et al., 2021). 국왕을 독재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국왕에 대한 칭송과 홍보는 태국에서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칭송이 어떤 때에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다. 위 연구는 국왕의 권력이 1947년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왕정(Network Monarchy)(McCargo, 2005)에서 어떤 조건에서 시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어떤 때에 더 적게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는 없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위 빈도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자면, 모두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관련이 되었거나 독재자의 탄압과 권력의 정도에 따라 시위의 빈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쿠데타 이후,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를 이용한 군부의 탄압 빈도가 늘었다. 그러나 태국이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도 힘들고, 네트워크 왕정의 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막강하게 자리 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위주의 국가의 일반화를 위한 관점보다는 태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2020년과 2024년의 차이점을 살펴본 다음, 일반화를 위한 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2. 태국 사례의 기존 연구 검토

기존의 태국 사례에 관한 연구의 경우, 2023년 이전에 대한 분석, 혹은 2023년 총선 분석(예컨대, 이미지 2024)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시위의 역사적

배경과 MZ세대가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연구(박은홍, 2024: 227-229; Baker and Phongpaichit, 2022: 329-334)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유석(2020: 139) 또한 아나콧마이당이 개혁적인 의제를 가져오며 군부 통치에 지친 사람들의 인기를 사로잡았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후속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까녹랏 텃추싸꾼의 경우에는 2020년 시위와 2021년 시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Lertchoosakul, 2021b).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 같이 MZ세대가 태국 정치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고 본다. 또한, 2023년 총선은 군부 통치에 대한 전 세대를 아우른 평가이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에 관한 염원의 결과라는 지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염원이 2024년 까우플라이당 해산으로 좌절되었음에도 왜 2020년에 관찰된 것과 같은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우하붓과 맥카르고(Laohabut and McCargo, 2023)는 까우플라이당 역시 아나콧마이당을 계승해 시위 참여자, 활동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로 개혁을 이끄는 운동 정당(movement party)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두 저자가 보이듯이 까우플라이당은 활동가들을 하원의원 후보로 지명하였고 당선도 되었다. 그러나 까우플라이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활동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20년과 2024년을 어떻게 다르게 회고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까우플라이당을 포함한 오랜 지당의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포착하고자 한다..

방법론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본 논문은 태국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당위를 강조하고자 한다. 태국 정치에 관한 양적 연구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짜뚜씨피탁과 릭스(Jatusripitak and Ricks, 2024), 그리고 신펡(Sinpeng, 202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두 연구는 2023년 총선을 전후하여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과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전 연구로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Asian Barometer Survey)를 활용한 사례(예컨대, 이정우, 2024; 2023; Pankaew et al., 2022; Meesuwat, 2016)가 있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의 최신 자료는 2022년의 데이터이며, 대부분의 자료 수집 기간이 분절되어 있어 아나콧마이당이 존재할 시기와 까우플라이당의 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다.

본 논문이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나콧마이당과 까우끌라이당 해산 당시에 대한 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양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2020년과 2022년 사이의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인터뷰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 시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왜 2023년, 2024년 이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인터뷰 수행을 바탕으로 태국 사례를 통한 일반화의 가설을 도출하고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아나콧마이당과 까우끌라이당 해산 사후의 배경

아나콧마이당은 2018년에 설립된 정당으로서 초기에는 금기시하던 왕실에 대한 언급보다는 군부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며 등장하였다. 당대표는 기업인 출신의 타나틴 종룽르영킷이다. 이들은 군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헌법을 개정하고 군부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김홍구·이미지, 2019: 134). 그들은 젊은 유권자의 인기를 얻었는데,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투표하는 1996년 이후 투표자의 인기를 얻었다(Lertchoosakul, 2020: 343; McCargo and Chattharakul, 2020: 62). 2019년 총선에서 81석을 확보해 약진하였으나 총선 이후에 군부로부터 정치보복을 받았다. 특히, 당 규정에 ‘국왕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보다 ‘헌법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문구를 적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한유석, 2020: 139). 이후, 선관위는 타나틴 대표가 당에 자금을 빌려준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으며, 2020년 2월 해산되었다(김홍구·이미지, 2021: 85).

아나콧마이당의 해산 이후, 젊은 세대는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는데(McCargo, 2021), 그러면서 그 후신인 까우끌라이당이 출범하였다. 이후 당은 왕실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023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선거 결과를 보이며 하원의 제1당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까우끌라이당의 등장은 젊은 세대의 인기만을 끌고 온 것은 아니었다. 특히 방콕에서는 1개 선거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까우끌라이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볼 때, 방콕 시민들이 군부 정권이 코로나 시기에 보여준 실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 대중은 전반적으로 군부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침체가 더해지면서 군부 정당보다 까우플라이당을 포함한 야당에 투표하게 된 것이다(이미지, 2024: 73).

까우플라이당은 이후 왕실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Bangkok Post, 2024/08/07). 아나콧마이당이 해산되었을 당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왕실 개혁 운동이 전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2020년 당시는 2023년 총선 이전에 군부가 집권하던 시기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창궐로 군부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높던 시기였다. 따라서 왕실 개혁과 군부 반대, 전염병 백신에 대한 반대의 구호가 겹쳐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왕실 개혁의 구호는 초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만화와 연예인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풍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McCargo, 2021: 178). 아나콧마이당의 해산이 까우플라이당의 해산보다는 시위가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까우플라이당의 해산은 더 높은 확률로 대중의 비판을 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시위를 추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1의 경향처럼 시위는 2024년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까우플라이당의 해산 이후 현재 거리의 집회를 관찰하기 어렵다.

거리의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태국 언론에서 보도된 신문 기사의 담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언론과 같은 공론장에서 어떤 기사들이 아나콧마이당과 까우플라이당의 해산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담론 분석은 단순한 내용 분석을 넘어서 “일정한 시공간 내의 의미생산의 체계들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그 체계들에 의해 구성되고 제약되는지 그 범위를 이해해보려는 시도”(차태서, 2020: 168)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나콧마이당과 까우플라이당의 해산을 바라보는 언론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론장에서 오고 가는 토론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태국의 대표적인 영자 신문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를 활용한다. 검색어는 “Future Forward”와 “Move Forward”이며, 가장 유사한 기사부터 우선적으로 제공되므로, 전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

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검색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2020년에는 “Future Forward” 관련 정치 기사가 223건, 2021년에는 42건을 기록하였다. “Move Forward”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색하여 경향을 파악하였다. 각각 142건, 118건, 783건, 343건이 검색되었고 이를 모두 활용하여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기사들을 인용하여 담론 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나콧마이당의 해산은 태국 대중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정치 활동이 금지된 타나틴 대표는 시위와 함께한다는 것이다(Bangkok Post, 2020/02/21).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해산된 이후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시위대를 위해 타나틴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를 넣었다는 내용(Bangkok Post, 2021/10/21)과 그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시위가 맞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응원하는 인터뷰가 확인된다는 점이다(Bangkok Post, 2020/09/26). 즉, 타나틴 대표가 대중과 함께한다는 내용의 서사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과 2021년 시위당시에도 이러한 보도를 통해 태국의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는 타나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나콧마이당은 언론을 통해서 대중과 시위에 함께한다는 관념을 전파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까우플라이당은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1년과 2022년 이전에는 까우플라이당의 대표인 피타 림짜른랏이 직접 나타나 아나콧마이당의 이념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인터뷰도 수행하였으나(Bangkok Post, 2020/03/14) 그 이후 당대표보다는 당 자체를 강조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나콧마이당과 같이 거리의 시위보다는 의회 정치를 통한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총선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해산을 중심으로 한 2024년의 기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해산을 앞두고 피타는 거리 시위보다는 대외적인 경제 불안정성을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 경고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Bangkok Post, 2024/08/02), 이처럼 바깥의 거리 시위와는 거리를 두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까우플라이당의 정신은 해산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며 강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다(Bangkok Post, 2024/07/28). 정리하자면, 까우플라이당의 담론은 의회 정치 내에

한정되는 발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까우플라이당이 언론을 통해서 형성하고자 하는 담론이 미시적으로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모두 수용되고 있는가이다. 필자가 연구 이전에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활동가인 필자의 지인과 필자는 까우플라이당의 해산이 왜 시위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까우플라이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형법 112조 개정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난 뒤였다. 필자의 지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해산 당일에 시위도 못 하게 하더니만 끝까지 타협이네.”라고 주장하였다. 정치인 엘리트들과 활동가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까우플라이당이 내세우는 주장이 시위에 참여한 이들과 괴리를 보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그들로부터 타나턴과 피타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서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나턴은 항상 시위에 나섰으나 피타는 의회의 과정만 중시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태국 현지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인터뷰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신문 기사의 내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러티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코로나19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사람들의 피로감, 까우플라이당 혹은 뿌라차춘당의 타협이 2024년 해산 이후 시위를 추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IV. 면접 조사 대상 선정과 분석 방법

2024년 10월 6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만 19세~만 34세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남성 5명, 여성 3명, 논바이너리(non-binary) 2명이 면담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024년 12월 3일에 한해서는 면담자의 사정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의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인터뷰 대상자 모집은 직접 활동한 익명 활동가의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졌다. 활동가들로부터 “시위에 주도적이었던 사람”을 추천받았으며 연쇄 추천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다. 면담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에 녹취하여 내용을 필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면담은 영어, 태국어-영어 통역, 일본어로 이루어졌고 이를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면담의 모든 과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를 위한 IR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과 질병관리청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이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IRB 면제의 조건을 갖추고 면담을 수행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들의 개인식별정보는 물론 특정 정당 지지, 노조 가입 여부를 포함한 민감 정보는 전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면담 대상자는 생명윤리법에 명시된 취약한 환경의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태국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접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며,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이 질적 연구에서는 중요한 지점이다. 대조군의 설정 혹은 표본 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스몰·칼라코, 2024: 53-54). 본 연구의 위관점처럼 익명의 활동가와 인권 활동을 하는 재단의 연결망을 통하여 활동가들에게 접촉하고 대표성이 있는 개인을 만나 그들로부터 연구 질문에 관해 깊고 의미 있는 답변을 듣고자 노력하였다. 연쇄 추천 샘플링을 도운 활동가의 경우, 1년 이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들 사이에도 수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집한 인터뷰는 태국 사회의 자세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교화된 설문조사의 수행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들에게 자신과 젊은 사람들이 2020년 이후 시위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여당과 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2019년 총선 이후 인기를 끌게 된 아나룻마이당과 까우끌라이당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고 파악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질문으로 삼는 2022년 이후의 상황에 대

해서 질문하였는데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 얼마나 일관되게 대답하는가에 대해 구별하기 위함이다.

심층 면담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면담 대상자가 면담자를 속일 수 있다. 둘째, 면담 대상자는 기억 회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면담 대상자는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던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넷째, 셋째와 비슷한 것인데 대상자는 자신이 모든 일에서 의도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섯째, 어떤 상황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한 가지만이 이유라고 면담 대상자가 주장할 수도 있다(Small and Cook, 2023).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연구의 목적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연쇄 추천 샘플링을 도와주는 익명의 활동가와 깊이 자세하게 공유하였다. 둘째, 처음으로 접촉하여 면담하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익명의 활동가와 동행하여 진행하였다. 모두 익명의 활동가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며, 그가 판단하기에 면담 대상자가 어떤 이야기를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추가 질의를 함께 해주었다. 셋째,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익명의 활동가가 면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를 들었다. 평상시에 나는 대화와 면담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넷째, 비슷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질의하였고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또한, 자신이 시위에 참여한 동기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질문하여 비교하고 이를 통해 면담 대상자의 일관성, 신빙성, 자신이 합리적,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하는지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면담의 대상자와 면담 날짜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들의 민감 정보 혹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 출신 지역, 교육 수준을 공개한다. 모두 방콕에 살고 있으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 추가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일관된 응답을 하는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청취할 수 있었다. 대상자 A를 3회, B를 3회, D를 1회, E를 1회, I를 3회, J를 3회 추가로 만나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다.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사항

식별코드	성별	연령	출신 지역	교육 수준	최초 면담 일자
A	남성	25	동북부	대학 졸업	2024/10/06
B	남성	25	동북부	대학 졸업	2024/10/09
C	여성	22	중부	대학 재학	2024/10/10
D	남성	28	동북부	기술학교 졸업	2024/10/15
E	논바이너리	21	동부	중고교 중퇴	2024/10/16
F	남성	34	중부	대학 졸업	2024/10/20
G	여성	19	중부	대학 재학	2024/10/25
H	남성	32	북부	대학 졸업	2024/10/27
I	논바이너리	20	중부	대안학교 졸업	2024/11/08
J	여성	25	동북부	대학원 재학	2024/12/03

V. 시위 참가자가 인식하는 2020년의 해산과 시위

본 장에서는 시위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020년 아나콧마이당 해산 당시의 기억을 살펴본다. 아나콧마이당 해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시위 참여 동기는 무엇이며,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파악한다. 그런 다음, 그들이 아나콧마이당부터 까우끌라이당의 차이점, 2020년과 2024년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다음 장에서 본 논문의 제목과 같이 2024년에는 시위가 2020년과는 다르게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부 답변에는 위의 질문 외에도 추가 질문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아나콧마이당의 해산 이후 시위에 참여한 동기를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아나콧마이당은 태국 사회에 새로운 돌풍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정당이다. 2020년 이전에는 왕실모독 죄 개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처음으로 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를 제시한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된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이었다. 젊은 세대가 아나콧마이당을 지지한 것은 타나턴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정치인들이 태

국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McCargo and Chattharakul, 2020: 51).

밝은 미래는 태국 사회에 깊게 박혀 온 전통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그 기관(the institution), 높은 사람(high person up there), 사회적 구조 문제(structural problem)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왕실모독죄의 조사 혹은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왕정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는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는 모두 기존 연구와 결을 함께 한다.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a)은 Z세대의 시위 참여 이유를 왕정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태국 사회에서 정치 개혁이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파된 것이다.

물론, 시위에 참여한 이유가 물론 아나룻마이당의 해산 하나뿐만은 아니었다. 단일한 이유만이 시위 참여를 자극할 수는 없다. 면담자들은 아나룻마이당의 해산 이후에는 군부 통치에 대한 반발,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에 나섰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평상시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나룻마이당의 해산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전통적으로 왕실을 중요하게 하는 사고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당시 인식에 대한 면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복합적인 이유에도 아나룻마이당의 해산이 주요 원인]

“제가 생각하기엔 의회 제도가 그 당시에, 정부도 그렇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요인은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이기죠. 요즘 그런데 시위가 잘 안 모여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정당 정치에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뿌라차촌당이 사람들이 시위를 못 나가게 하고 있고 거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는 사람들이 아나룻마이당의 해산에 불만을 갖고 나왔죠. 2024년에는 까우플라이당이 해산되었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인상만 안겨주죠. 사람들이 해산에 그냥 적응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시위의 이유는 어쨌든 첫째로 아나룻마이당의 해산이었고 그 정당은 젊은 사람들의 희망이었어요. 둘째는 코로나19입니다. 뿌라웃 군사 정권은 잘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군사 정권

하에서의 문제도 있었는데 바로 활동가들을 선별적으로 잡아갔다는 거죠. 당시에 LGBT 문제나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었는데,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협박을 당하고 폭력에 당하니까 많은 사람이 연대의 의미에서 거리로 나온 것이죠”(인터뷰 대상자 G).

[아나콧마이당이 갖는 의미와 시위 참여]

“아나콧마이당이 존재하는 동안, 그 정당은 태국 정치에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 그 희망은 파괴되었죠. 정부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는 바깥으로 나와서 시위를 시작한 거죠. 희망이 파괴되고 정부를 반대하니까 시위가 일어난 것이예요”(인터뷰 대상자 C).

[아나콧마이당은 희망]

“사람들이 시위에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사람들은 카우플라이가 해산되었다고 해서 시위에 무작정 나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아나콧마이당이 해산되던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시위에 나갈 플랫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나콧마이당이 해산되던 때에는 시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아나콧마이당은 젊은 사람들을 정말로 모티브를 주는 화제를 새롭게 다루고 있었어요. 물론 카우플라이당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 아나콧마이당이 주는 의미가 달랐던 말이에요. 새로운 당으로서 아나콧마이당은 정말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나콧마이당에 희망을 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사 정권하에서 선거도 없었으니까요”(인터뷰 대상자 E).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모두 아나콧마이당을 묘사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희망(hop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당은 당시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으며, 대표가 나서서 직접 시위를 이끄는 모습은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위 참여에는 다른 요인들도 존재하지만, 정당 해산으로 인한 좌절감 역시 젊은 세대가 시위에 나선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아나콧마이당의 당 대표가 그들을 시위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VI. 시위 참가자가 인식하는 2024년의 해산과 시위 저해 요인

까우플라이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후, 그를 계승한 빠라차촌당은 현실과 타협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위 참여 경험자들의 증언이다. 이들은 해당 정당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태국 정치 구조에 저항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나콧마이당 해산 이후 타나틴이 시위를 주도했던 것처럼, 까우플라이당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활동가들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면담자들은 아나콧마이당과 까우플라이당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권력을 얻으려는 까우플라이당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

“까우플라이는 타협을 하지. 그런데 아나콧마이는 다른 상황에 있었어. 아나콧마이의 대표 타나틴을 알지, 그렇지? 그 대표는 시위를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했어. 큰 시위에 가면 언제나 타나틴이 있었던 말이야. 그런데 까우플라이는 시위로부터 거리를 뒀어. 거리를 뒀단 말이야. 상황이 까우플라이가 시위에 연관이 있게 만드는 거지 그들은 시위 대표들하고 거리를 뒀어. 아나콧마이는 직접적으로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어, 그 당시에는 왕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민감했던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왕실 문제가 국가적인 어젠다로 떠올랐지. 빠라차촌당은 더 많이 타협을 한단 말이야. 한 번 더 해산될까봐 무서워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추고 있던 말이야. 빠라차촌당이 선택지이긴 하지만 희망이 없어. 프어타이당은 그냥 국가의 꼭두각시일 뿐이고. 만약 다른 정당이 대안으로 있고 좀 더 공격적이고 진보적이라면 나는 그 다른 정당에 투표할 거야”(인터뷰 대상자 A).

[까우플라이당은 시위자들과 거리를 둔다]

“오, 아주 다르지! 나는 이게 참 별로라고 생각해.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정당들을 덜 급진화한다고 생각해. 헌법재판소. 해산을 할 때마다 점점 덜 급진적으로 만든단 말이야. 아나콧마이당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이 제한되어 있었어. 그래도 정당은 실제로 사람들하고 움직였던 말이야.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말이야. 타나틴은 그래도 계속 시위에 나타났어. 그런데 까우플라이당은 국회의원 아무도 형법 112조와 관련해서 사람들과 연결을 지을 의지가 없지”(인터뷰 대상자 B).

활동가의 발화 내용을 볼 때 아나콧마이당 당대표였던 타나틴과 까우플라이당의 차이점이 대비되는 지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타나틴은 시위를 직접 추동하고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까우플라이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A를 추가로 면담을 수행할 때, 2020년 초기에서부터 시위를 동원하는 주된 행위자가 정당으로 느끼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러한 추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까우플라이당의 해산 사후에 아나콧마이당과 비교하면서, 타나틴의 이미지가 사후에 부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 시위는 타나틴으로부터 명백하게 주도되었고 이는 신문 기사(예컨대 BBC, 2019/12/1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활동가들은 까우플라이당이 해산 이후 시위를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보고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지켜보고 있던 곳이 길거리가 아니라 까우플라이당 당사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까우플라이당의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대중들에게 주장하지만, 활동가들에게 정치인들은 당이 해산되면 그저 다른 정당으로 재건하고 이동하면 되는 사람들일 뿐이었다. 따라서 활동가들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시위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에 대해 오래 알아 온 지인과 수행한 면담 내용을 소개한다.

[까우플라이당은 시위를 원하지 않았다]

“세 정당 사이의 차이는 크지. 나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 아나콧마이를 돌이켜보면 말이야. 그들은 이상적인 것에 대해 아주 직접적이었어. 굉장히 강했다고. 그들의 이상은 그대로였고, 아나콧마이에서 까우플라이로 해산되고 넘어갔을 때 그때는 차이가 별로 없었어. 그냥 국회의원 개인들이 좀 다른 것을 보였던 말이야. 너 까우플라이 국회의원들이 가끔 다른 의견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걸 알거야. 그런데 까우플라이에서 뿌라차촌으로 갈 때는, 그들은 이미 뭐 프어타이나 다른 게 없지. 두 번째로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봤으면 알 텐데, 그들은 아주 다르지. 첫 번째로 해산되었을 때, 아나콧마이당은 시위를 이끌었고 거리로 나갔어. 그들은 정치 운동의 창끝이 되었던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해산에서는 까우플라이

의 대변인이 사람들에게 해산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의 진짜 의도는 사람들에게 우리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지. 나는 두 번째 해산 날 까우플라이당이 사람들에게 시위에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느꼈어. 그날 당사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정당이 사람들이 시위에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두 번째 해산 석 달 전에, 대변인이 나와서 대중에게 해산은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만 모두에게 의회 정치를 믿어 달라고 했던 말이야. 그들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가길 바라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런 점에,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에 상처를 받았어. 우리는 정당이 왕실모독죄에 의해서 해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아나콧마이는 그런 점에서 그들의 시위와 정책에 자신감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소통이 분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인터뷰 대상자 D).

이 장면은 활동가들이 까우플라이당의 태도 변화, 그리고 시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타협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를 계기로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우선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태국 사회에서 “지도자”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특정 인물이나 가족을 숭배해왔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를 일으킬 때도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도자라는 변수 이외에도 많은 요인이 있었다. 예컨대, 그들은 코로나 19 시국이 완화되어 모두 경제 활동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왕실모독죄로 인한 탄압이 시위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여러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나콧마이당처럼 까우플라이당 역시 해산 이후 시위를 이끌었다면 그들은 모두 거리로 나갔을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까우플라이당이 타협을 하고 나서지 않아 시위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모두 까우플라이당이 시위를 주도했을 경우, 참여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래와 같은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한다.

[까우플라이당에 대한 실망]

“까우플라이당이 해산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지쳤죠. 그리고 해산 전에 까우플라이

당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정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대중에게 정당 해산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당 해산과 재건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싸우플라이당이 계속 유권자와 소통하고, 다음 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권자들은 싸우플라이당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시위를 위해서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힘이 과다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뿌라차촌당이 좀 더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의 대표는 나와서 우리가 다음에 과반 이상의 정당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상원 의원 중에 아무도 뿌라차촌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 좀 희망을 가지고 그만 좀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싸워야지. 그저 그냥 전통적인 정당들 같이 평균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만 타협했으면 좋겠어요”(인터뷰 대상자 C).

싸우플라이당에 신뢰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면담자 모두 해산 이후에 당이 보인 대응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자들 일부는 모두 왕실모독죄로 조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를 당하고 감옥에 다녀온 이들이다. 인터뷰 대상자 C의 경우에도 이미 투옥된 적이 있지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싸우플라이당이 해산된 이후 뿌라차촌당이 좀 더 급진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과 왕실모독죄로부터의 탄압도 시위가 감소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지만, 시위를 크게 확대하고 이끌 수 있는 정당 요인의 부재가 2024년의 시위 감소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VII. 뿌라차촌당과 시위대의 심리적 거리

그렇다면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가들은 싸우플라이당 해산 이후 뿌라차촌당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들 역시 피타의 정치 활동 금지 이후 뿌라차촌당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활동가들은 싸우플라이당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선거에 임했으나 지금은 조용히 있는 뿌라차촌당이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또한, 다음 선거에서의 태도를 관망하고자 하는 태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쁘라차촌당에 대한 회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정치적 인식이 성숙해졌죠, 선거가 지나면서요. 아나 쿿마이당이 해산되었을 때는 그것이 저에게 첫 투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했었죠. 해산의 이유가 너무도 명백히 불공정했거든요. 어떻게 더 나은 세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죠?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까우플라이당이 해산되었을 때는 그들은 별로 화가 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밑에는 좌절이 있었나 봅니다. 예를 들어, ilaw에서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10만 개가 넘었거든요. 이게 시위랑 비슷했죠.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인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도드라진 지도자가 없거나 활동가 그룹이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글썄, 이제 앞으로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죠”(인터뷰 대상자 J).

필자는 인터뷰 대상자 J에게 추가로 타나틴보다 피타를 더 좋아하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러자 “그럼요! 저는 타나틴이 더 혁명적인 바이브(vibe)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윗세대는 타나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별로 타협을 하지 않거든요”이라고 답변하였다. 뿌라차촌당과 해산된 까우플라이당은 아나쿿마이당 시기에 비해 타협한다는 이미지가 그만큼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대답에서 필자는 A에게도 뿌라차촌당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였다. 다음의 답변을 소개한다.

[뿌라차촌당은 보수주의자들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뿌라차촌당이 다음 선거에서 270석 이상을 얻는 대승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뿌라차촌당은 태국의 정치적 맥락과 인기를 보기에 아마 그렇게 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보수 정당들과 연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까 정부 구성이 또 힘들겠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소리야. 내가 보기엔 뿌라차촌당은 혼자서 정당을 구성하기 힘들 거야. 270석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정부 구성을 위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 뿌라차촌당은 해산될 위협에 두려워하고 다른 정치 엘리트들은 그들의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들은 결국 협상을 해야 해. 민주화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결국 뿌라차촌당 지도부에 달려있어. 그들이 기존 엘리트들과 어떻게 타협하고, 그들의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인터뷰 대상자 A).

이러한 응답에 대해 필자는 “보수주의자들과 협상하면 까우플라이당이 계속 왕실모독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문하였다. 그러자 인터뷰 대상자 A는 “쁘라차촌당이 그런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텐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뿌라차촌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있으나 총리 선출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왕실모독죄를 둘러싸고 뿌라차촌당의 묘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난관이다.

이제까지 제시된 인터뷰의 내용을 보았을 때, 까우플라이당의 해산 이후에 뿌라차촌당의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까우플라이당이 정부 구성에 실패하였듯이 뿌라차촌당도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활동가들에게 충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도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뿌라차촌당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뿌라차촌당은 시위 촉진에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필자가 참여관찰을 통해 목도한 것은, 뿌라차촌당보다 일부 상원의원들이 민주주의 활동과 헌법 개정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첫째, 필자는 2024년 12월 2일에 두셋 지방 법원에서 열린 수감자 공판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시나카린위롯대의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카눈”이었다. 이 공판에서 프어타이당의 하원의원이 직접 방청을 하였고, 증거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곳에서 직접 만난 익명의 인권운동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프어타이당도 오는데 뿌라차촌당은 어디 있는가?]

“공판의 시작도 정말 늦습니다. 일부러 시작을 늦춰 가지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사람은 프어타이당 하원 의원인데 오늘 와서 이재판을 같이 지켜보네요. 저번 10월 6일 탐마삿 학살 기념식에도 뿌라차촌당 정치인이 일부 오기는 했지만, 피타는 안 보이더니 이런 중요한 재판에 대체 까우플라이당 의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해산이 될까 봐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태국 민주주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기다리겠지만 과연 그게 실효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2024년 12월 2일 익명의 활동가 인터뷰).

위의 인터뷰는 뿌라차촌당과의 심리적 괴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의 눈치를 보는 당의 상황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위대 혹은 인권 활동가들도 뿌라차촌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필자는 2024년 12월 8일에 뿌라팟 상원 의원이 중심이 되는 소위원회의 “Pop Con”(대중헌법이라는 뜻의 Popular Constitution의 줄임말) 행사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태국 상원 의회에 방문하여 Pop Con의 활동 계획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상원 의원들은 활동가들과 함께하면서 정치 발전,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는 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이 헌법 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정 논의가 오고 갔다. 위 행사에서 필자의 인터뷰 대상자들도 다수 만나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뿌라차촌당의 행보는 관찰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거리의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는 태국의 정당이 아니라 비정부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이다. 뿌라차촌당은 형법 112조를 둘러싸고 보수주의자들과 협상을 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당 해산 혹은 하원의원의 자격 박탈을 막고 동시에 시위 참가자와 일부 인권운동가들과 발생하고 있는 거리감을 줄이는 것을 과제로 안고 있다. Pop Con에서 만난 인권 활동가와 이에 대해 추가 인터뷰에 응한 대상자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상원이 사회운동에 일부 도움이 된다]

“이전에 상원은 군부에 의해 임명되었어요. 현재에도 좀 이상한 방법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한 상원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17년부터 5년 동안 임명된 상원 의원은 그렇지 않았지만, 현재 의원 중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뿌라차촌당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으니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곳을 당연히 찾아서 다 같이 연대해야겠죠.”(2025년 4월 3일 익명 활동가 인터뷰).

[상원의 일부 의원이 뿌라차촌당에 비교해 급진적이다]

“내가 그럼에도 뿌라차촌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야. 물론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길게 나누었던 것처럼 아나코트마이당과 뿌라차촌당이 아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대안이 하나도 없고 뿌라차촌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 와중에 드러나는 것이 상원의 일부 의원이 가진 역할이야.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 상원에서 민주적인 성격의 의원 수가 적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 그러나 요즘 같은 때에는 뿌라차촌당 의원들보다 더 급진적인 성격을 보이지. 슬프지만 사실이야.”(인터뷰 대상자 B, 2025년 6월 28일).

VIII. 탁신의 귀환, 문화 요인에 관한 추가 논의

결론을 통해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변수들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추가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복수 진행하였다. 탁신의 귀환이 청년의 정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문화의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다. 탁신의 귀환이 시위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뿌라차촌당과 프어타이당의 연대 가능성이 있었기에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길거리 시위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결정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당 고위 지도부와 중간 간부의 일치, 활동가와 정치인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 지도부에서 그렇게 결정하였다더라도 중간 간부 정치인, 활동가와 불협화음이 있다면 그것은 뿌라차촌당 내부의 분열을 의미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활동가들은 뿌라차촌당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레드 셔츠에서도 일부 뿌라차촌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현재 노동 운동계와 다른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시위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 시위의 빈도가 줄어든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탁신이 귀환하여 시위를 줄이고 의회 정치를 신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아래는 익명을 요구한 활동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2000년대부터 레드셔츠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프어타이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의회 정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

다. 시위는 지속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회를 활용만 하고 시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사실 까우플라이당의 의원 절반 정도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정당 지도부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의원들은 아주 일반적이죠. 아나콧마이당은 아주 강하고 진보적이었죠. 까우플라이는 괜찮았는데, 지금 빠라차촌당은 솔직히 보수적이라 생각합니다. 5명 정도나 좀 급진적일까. 저는 형법 112조 사면에 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뭐 듣지도 않았어요. (...) 사실 지켜보고 있고 그냥 활용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의회 체제에서 뭔가 얻을 수 없다면 나와서 싸워야죠. 정당 지도부의 문제는 그냥 시위자들을 유권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많은 발전을 위해 법을 제안하죠. 그런데 의회가 그 법안에 투표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시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요. 많은 시위가 있어야 들어줄 것 아닙니까? 만약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위한다면 많은 시위를 열고 정책을 주장해야 합니다”(2024년 11월 9일, 익명의 활동가 인터뷰).

또한, 프어타이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20대 활동가 역시 탁신과 프어타이당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프어타이당과 탁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탁신에도 빠라차촌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던지면서 단일하게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가들과의 불협화음이 시위 진작을 막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탁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탁신의 귀환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였어요.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예전처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직 총리의 귀환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상징과 정치적 무게가 담겨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예전처럼 탁신이 직접 협상의 중심에 서서 정치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의회에서 다수당을 이끌면서 직접적인 힘을 가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 탁신이 미치는 영향이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정 정치인이나 기관에 충성하지 않아요. 탁신이 귀국했을 때, 많은 젊은

유권자들은 프어타이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이걸 명확한 메시지에요. 지금 정치 지형은 많이 달라졌어요”(인터뷰 대상자 E).

고위 지도부와 중간 간부의 당내 관계는 어떨까? 기존 연구의 인터뷰에 따르면, 까우끌라이당에서 지난 2023년 총선을 전후하여 복수의 활동가를 의회로 진출하게 하였음에도 고위 당직자들과 활동가 출신 정치인들의 간극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활동가 출신 정치인들은 지역 활동가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지만 고위 당직자들은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Horatanakun, 2024).

위 연구는 뿌라차촌당의 중간 간부와와의 인터뷰를 담았으며 그들이 고위 당직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는 지점을 포착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듯 사회운동 활동가뿐만 아니라 까우끌라이당에 진출한 활동가 출신 정치인들과 뿌라차촌당 고위 당직자 사이에 불일치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가들 사이에는 탁신과 선거 혹은 의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중간 간부와 고위 지도부 사이에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것은 뿌라차촌당 고위 당직자들의 의도일 수는 있으나 활동가들과의 불일치성이 당의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프어타이당과 뿌라차촌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최근 군부 정당이 팔랑뿌라차랏당과 연대하여 패팅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한 바 있다(Komlongharn, 2024). 따라서 탁신의 귀환을 통해 뿌라차촌-프어타이 양당이 연대를 준비하고 선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시위가 전략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선거 또는 제도를 통한 민주화에 대한 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도 결부되어 있다. 아무리 당선이 되더라도 쿠데타 등 제도 외적인 행동들이 수반된다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다.

[헌법재판소와 무기력한 제도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점점 타협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번씩

정당을 해산할 때마다 정당이 타협을 해요. 아나콧마이당이었을 때는 정당은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당은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사람들과 궤를 같이했다는 말입니다. 타나턴은 개혁을 하자는 시위에 사람들과 함께했어요. 뿌라차촌당은 형법 112조에 대해서 함께하려는 국회의원들도 없죠. (...)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은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민주적인 운동이 현재 굉장히 탄압을 받고 범죄화되고 있어요. 어떤 활동가들은 법원에 가기 바쁘고 몇몇은 망명을 위해 태국을 떠나죠. 현재는 시위에 참여하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범죄화되고 있어요. (...) 사람들은 무언가 정치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압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지 고민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도울지 생각해야 해요. 정치 엘리트들이나 통치자들, 그리고 독재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시위에 나서야 합니다.”(인터뷰 대상자 B).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문화 요인이다. 태국인들은 좋은 것은 좋게(“마이빰라이”), 쉽게 잊어버리는(“름응아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시위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추가로 인터뷰를 수행한 활동가와 일반인들은 시위가 확산되어야 하고 야당이 더 많이 도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현재 시위가 감소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왕실모독죄에 의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다. 오히려 시위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필자와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추가 인터뷰 대상자는 시위 참여에 따라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젊은이들의 시위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거 결과가 정확히 정치적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태국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나 활동가나 모두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협 회피를 전략으로 채택하지만 마이빰라이, 름응아이와 같은 문화적인 요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을 지킬 뿐]

“나는 솔직히 왕실을 이렇게 비판하게 된 현실이 슬퍼. 나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왕실에 대한 기억이 좋거든. 공주께서 오셔서 우리 고등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좋았어. 너도 기억하겠지만 너에게도 돌아가신 국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의 시위는 이해해. 그들은 처벌이 무서우니 안 나가는 거야, 이제는.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기 인생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지.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처벌이 무서워서 나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뿌라차츰당도 나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다음 선거에서 뿌라차츰당이 이겨도 뭔가 다른 대안이 나타날까? 나는 시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지만 모르지 않아.”(2024년 10월 20일, 익명의 지인 인터뷰).

IX. 결론

본 논문은 2024년에 일어난 까우플라이당 해산 이후에는 2020년 아나콧마이당 해산 당시와는 다르게 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질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두 정당의 해산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였다. 아나콧마이당은 시위 진작에, 까우플라이당은 의회 정치 집종의 담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그러한 까우플라이당의 모습에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미시적인 발화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고, 몇몇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에는 왕실모독죄로 조사를 받거나 이미 수감된 적이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2014년 쿠데타 이후 계속된 왕실모독죄를 이용한 군부의 탄압이 장기적으로 시위를 줄여들게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2020년과 2024년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위를 동원하는 정당 요인의 부재임이 확인되었다. 활동가들은 2020년 해산 이후에는 아나콧마이당의 대표였던 타나틴이 시위를 주도하였지만, 2024년 해산 이후의 뿌라차츰당은 집회를 주도하고 있지도 않고 오히려 수감된 활동가들과 거리를 둔다고 항변하는 모습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시위가 감소한 요인에는 왕실모독법의 탄압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참가자들이 모두 피로감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나 쿿마이당이 주도하면서 시위가 본격적으로 2020년에 일어난 반면에, 2024년의 해산 이후에는 시위 주도에 있어 정당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권위주의 국가의 시위 빈도 결정 요인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기존 연구 검토에서 다룬 것처럼, 반대파 정당은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선거를 위하여 시위를 동원한다. 정치 체제가 조금 더 민주화된다면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Trejo, 2014). 태국과 같은 권위주의의 사례 배경은 위 논문과는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정당 요소가 시위의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다만, 빠라차촌당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왕실모독죄를 바탕으로 시위를 주도해 벌어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해산을 막으려고 했을 것이다. 왕실모독죄의 영향은 2014년도부터 상수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왕실모독죄의 탄압이 더 강해져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해산된 까우플라이당의 정치인 혹은 빠라차촌당이 시위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이후 시위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2023년 이후에 태국 정치 연구에서 부재한 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MZ세대가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을 다룬 정치학, 역사학 연구(예컨대, 박은홍, 2024; Baker and Phongpaichit, 2022: 329-334)를 바탕으로, 2024년도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 시위가 더 늘지 않았는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태국과 유사한 왕정 체제 혹은 권위주의 체제의 시민사회에서 정당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가들이 2024년 이후에는 2023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세하고 독창적인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피타 림짜른랏의 인기와는 달리, 현재는 모두 빠라차촌당에 실망을 느끼고 있다. 활동가들은 계속된 왕실모독죄를 중심으로 한 탄압으로 인해 현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결국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는 빠라차촌당이 다음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였을 때, 집권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우려도 존재한

다. 이러한 우려는 추후 태국 민주주의의 전망을 좌우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은 방법론의 장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갖춘 대표성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의 목소리를 깊게 듣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태국에서의 정당이 시위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양적 연구가 추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본 논문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설문지의 생성은 더욱 풍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심층 면담의 경우, 시위 중심에 섰던 MZ세대를 대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이전 세대와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여 발화 비교 연구를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5년 2월 2일 | 심사일: 2025년 6월 13일 |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김홍구·이미지. 2019.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동남아시아연구』 29(2): 127-159.
- _____. 2021.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31(1): 81-112.
- 박은홍. 2024. 『불복종의 정치학』. 파주: 드레북스.
- 스몰, 마리오 루이스·제시카 칼라코. 이지원·정택진(역). 2024. 『더 단단한 질적 연구를 위한 안내서』. 서울: 겐처북.
- 이미지. 2024. “2023년 태국 총선: 탁실파 주도 연립정권의 탄생과 군부와의 연합.” 『한국태국학회논총』 30(2): 69-94.
- 이정우. 2023. “태국의 세대 정치: 세대의 차이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동남아시아연구』 33(4): 85-121.
- _____. 2024. “태국 MZ세대의 SNS 활용,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이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43(2): 193-231.

- 차태서. 2020. “담론 분석.” 박종희 편.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 159-201.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 한유석. 2020. “태국 2019: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 『동남아시아연구』 30(1): 133-156.
- Baker, Chris, and Pasuk Phongpaichit. 2022. *A History of Thailand (Four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ter, Erin Baggott, and Brett Carter. 2021. “Propaganda and Protest in Autocrac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5(5): 919-949.
- Coppedge, Michael, John Gerring, Carl Henrik Knutsen, Staffan I. Lindberg, Jan Teorell, David Altman, Fabio Angiolillo, Michael Bernhard, Cecilia Borella, Agnes Cornell, M. Steven Fish, Linnea Fox, Lisa Gastaldi, Haakon Gjerløw, Adam Glynn, Ana Good God, Sandra Grahn, Allen Hicken, Katrin Kinzelbach, Kyle L. Marquardt, Kelly McMann, Valeriya Mechkova, Anja Neundorf, Pamela Paxton, Daniel Pemstein, Oskar Rydén, Johannes von Römer, Brigitte Seim, Rachel Sigman, Svend-Erik Skaaning, Jeffrey Staton, Aksel Sundström, Eitan Tzelgov, Luca Uberti, Yi-ting Wang, Tore Wig, and Daniel Ziblatt. 2024. “V-Dem Codebook v14.”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 De Vogel, Sasha. 2022. “Anti-opposition Crackdowns and Protest: The Case of Belarus, 2000-2019.” *Post-Soviet Affairs* 38(1-2): 9-25.
- Haberkorn, Tyrell. 2018. “Dictatorship, Monarchy,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ailand.”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7(4): 935-943.
- Jatusripitak, Napon, and Jacob Issac Ricks. 2024. “Age and Ideology: The Emergence of New Political Cleavages in Thailand’s 2566 (2023) Election.” *Pacific Affairs* 97(1): 117-136.
- Kongkirati, Prajak. 2019. “From Illiberal Democracy to Military Authoritarianism: Intra-elite Struggle and Mass-based Conflict in Deeply Polarized Thailan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81(1): 24-40.
- Laohabut, Thareerat, and Duncan McCargo. 2024. “Thailand’s Movement Party: The Evolution of the Move Forward Par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4: 25-47.

- Lertchoosakul, Kanokrat. 2020. "Thailand in 2019: The Year of Living Unpredictably." *Southeast Asian Affairs* 2020: 336-354.
- _____. 2021a. "The White Ribbon Movement: High School Students in the 2020 Thai Youth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206-218.
- McCargo, Duncan. 2005. "Network Monarchy and Legitimacy Crises in Thailand." *The Pacific Review* 18(4): 499-519.
- _____. 2021. "Disruptors' D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175-191.
- McCargo, Duncan, and Anyarat Chattharakul. 2020. *Future Forward: The Rise and Fall of a Thai Political Party*. Copenhagen: NIAS Press.
- Meesuwan, Sanyarat. 2016. "The Effect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the Internet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2(2): 57-82.
- Pankaew, Attasit, Stithorn Thananithichot, and Wichuda Satidporn. 2022. "Determina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An Analysis of Survey Data (2022-2014)." *Asian Politics & Policy* 14(1): 92-113.
- Reuter, Ora John, and Graeme Robertson. 2015. "Legislatures, Co-optation, and Social Protest in Contemporary Authoritarian Regimes." *The Journal of Politics* 77(1): 235-248.
- Shirah, Ryan. 2016. "Electoral Authoritarianism and Political Unres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7(4): 470-484.
- Sinpeng, Aim. 2024. "Social Media and the DIY Politics in Thailand's 2023 Election." *Pacific Affairs* 97(1): 99-116.
- Small, Mario, and Jenna Cook. 2023. "Using Interviews to Understand Why: Challenges and Strategies in the Study of Motivated Action."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52(4): 1591-1631.
- Sripokangkul, Siwach, Charles David Crumpton, and John Draper. 2023. "Restricting Democratic Choice in Thailand's 2019 Election: 'Retrograde' and 'Sophisticated' Authoritarianism." *TRaNS: 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11(1): 71-87.
- Trejo, Guillermo. 2014. "The Ballot and the Street: An Electoral Theory of Social Protest in Autocracies." *Perspectives on Politics* 12(2): 332-352.

[신문 기사]

- Bangkok Post. 2024. "Court Dissolves Move Forward Party." (Aug. 7).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3182/court-dissolves-move-forward-party>(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24. "Move Forward's Pita Warns of Instability ahead of Thai Court Rulings." (Aug. 2).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40188/move-forwards-pita-warns-of-instability-ahead-of-thai-court-rulings>(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24. "Move Forward Spirit 'Unwavering' amid Dissolution Threat." (Jul. 28).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837273/move-forward-spirit-unwavering-amid-dissolution-threat>(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21. "Court Denies Thanathorn Bail Request for Student." (Oct. 21).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201863/court-denies-thanathorn-bail-request-for-student>(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20. "Thanathorn: Students on Right Track." (Sep. 2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992087/thanathorn-students-on-right-track>(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20. "Pita Tries to Keep FFP Ideology Alive." (Mar. 14).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878645/pita-tries-to-keep-ffp-ideology-alive>(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20. "Thanathorn to Intensify Work outside Parliament." (Feb. 21).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862799/thanathorn-to-intensify-work-outside-parliament>(검색일: 2025. 7. 20.).
- Bangkok Post. 2019. "Prawit Warns Thanathorn: 'No Protests.'" (Nov. 22).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799294/prawit-warns-thanathorn-no-protests>(검색일: 2025. 7. 20.).
- Ewe, Koh. 2024. "Detained Thai Activist Dies of Cardiac Arrest After Monthlong Hunger Strike." *TIMES* (May 14).
- Horatanakun, Akanit. 2024. "Thailand's Deinstitutionalised Democracy Movement." *New Mandala* (Dec. 23).
- Komlongharn, Chanapat. 2024. "People's Party comfortable working with PPRP, says

Natthapong.” *The Nation* (Dec. 19).

Lertchoosakul, Kanokrat. 2021b. “Thai Youth Movements in Comparison: White Ribbons in 2020 and Din Daeng in 2021.” *New Mandala* (Dec. 15).

BBC. 2019. “ธนาธร ลั่นจัด “แฟลชม็อบ” เพราะต้องการให้ “เห็นหัวประชาชนบ้าง” 14 ธันวาคม <https://www.bbc.com/thai/thailand-50793209>(검색일: 2025. 1. 4.).

[인터넷 자료]

Crisis24. 2024. “Thailand: Anti-government Protest to Take Place at October 14 Memorial in Bangkok from 12:00 Oct. 19.” <https://crisis24.garda.com/alerts/2024/10/thailand-anti-government-protest-to-take-place-at-october-14-memorial-in-bangkok-from-1200-oct-19>(검색일: 2024. 12. 9.).

Mob Data Thailand. n.d. <https://www.mobdatathailand.org/>(검색일: 2024. 12. 9.).

Abstract

Explaining the Decline in Protests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Thailand's Move Forward Party: A Political Party Factor

Jeongwoo Lee Korea University

Anti-government protests in Thailand have in decline since 2022. When the Move Forward Party was dissolved in 2024, it was anticipated that the frequency of protests would increase, similar to the dissolution of the Future Forward Party in 2020. However, this did not occur. Why did the dissolution of the Move Forward Party fail to trigger a surge in protests, unlike the case of the Future Forward Party?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ten individuals aged 19 to 34 who either participated in protests or played leading roles in protest movements between 2020 and 2022. It examines the differences in how protesters perceive the Future Forward Party, the Move Forward Party, and the recently re-established People's Party,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have led to a decline in their participation in protests. According to the activists interviewed, the primary reason for the decline was that the Move Forward Party did not take on a leadership role in mobilizing protests, unlike the Future Forward Party, despite the impact of the use of legal repression and people's return to economic activities in post-COVID-19 society.

Keywords | Anti-government Protest, Electoral Authoritarianism, Move Forward Party, Political Party, Thailand

